

World publishing news



.....

독일 C. H. 베크사社, 번역상 신청접수 받아

독일의 출판사 C. H. 베크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번역상 신청접수를 받는다. 독일어로 번역되어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독일출판사에서 간행된 학술과 논픽션 분야의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번역상의 상금은 1만 유로. 신청서와 함께 원서 1부와 독일어판 2부를 9월 30일까지 C. H. 베크사(주소 : Verlag C. H. Beck, Presseabte-ilung / bersetzerpreis, Wilhelmstrae 9, 80801 Mnchen)로 제출하면 된다.

.....

독일, 온라인 서점 매출 증가

독일의 온라인 서점 buecher.de/booxtra는 올해 상반기 15퍼센트의 매출증가를 기록했다.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buecher.de의 매출은 1,900만 유로(28억5,000만 원)로 올 상반기 매출액은 1,000만 유로로 추정된다.

buecher.de의 증가율 15퍼센트라는 수치는 온라인 서점의 도서시장 점유율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buecher.de의 사장 귄터 게어라흐 씨는 올해 두 자리 수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buecher.de사社는 독일의 우수 출판사인 벨트 빌트, 홀츠브링크, 악셀 슈프링어, T-Online의 공동투자회사이며 buecher.de와 booxtra.de를 포함하고 있다.

.....

제27차 국제출판협회 총회 베를린에서 열려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제27차 국제출판협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47개국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다양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참석자들은 문맹, 표현·출판의 자유, 저작권 등의 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국제단체와 각국 정부들에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표현·출판의 자유' 침해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제27차 국제출판협회 총회 공식사이트 www.ipa-congress.com에서 결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번 총회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안나 마리아 카버네야스 씨가 여성, 그리고 중남미 출판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차기 국제출판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장의 임기는 2년. 카버네야스 씨는 "회장활동에 있어 정직과 책임감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인 카버네야스 씨는 아르헨티나의 전문출판사 엘리야스타 & 클라리다드의 사장이다. 1989년 이후 그녀는 아르헨티나출판협회 회장을 4회 역임했으며, 지난 4년간 중남미출판협회의 회장이었다.

.....

중국, 2003년 도서 판매·수출에 신바람

중국정부에 따르면 2003년 중국도서 매출은 56억 달러(6조7,200억 원)로 6.1퍼센트의 성장을 보였다. 성장의 주요 원인은 9.6퍼센트의 도서정가 인상 때문. 중국에서는 2003년 총 68억 부의 책이 판매됐다. 여기에 화답하듯 중국 출판신문서도 2003년 중국 도서수출이 증가했음을 발표했다. 도서수출액은 2,370만 달러(284억4,000만 원)로 전년에 비해 26퍼센트 증가했다. 참고로 2003년 중국에 수입된 도서와 전자제품은 1억5,720만 달러(1,890억 원)다. 한편 출판신문서는 "2006년 국제청소년 도서위원회(IBBY, 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베이징 총회를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 도서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